



관객을 위하여
www.pusantheatre.or.kr



2000 부산연극제

The 18th Pusan Theatre Festival

시민회관 소극장. 문화회관 중극장. 야외특설무대. 문화회관국제회의장
2000년 3월 30일 ▶ 4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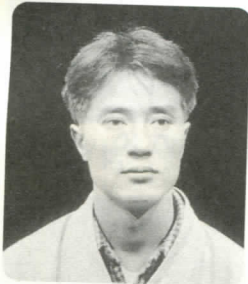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극협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총부산지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PSB부산방송, BBS불교부산방송, CBS기독교부산방송
- 협 찬 : 한국통신, 범우기획, (주)용호개발, (주)예송, PSB연예아카데미
- 특별협찬 : 미디어넷 www.m-n.co.kr, 인디인터넷방송국 www.noravoza.pe.kr
스타쇼핑몰 www.wowzone.co.kr

The 18th Pusan Theatre Festival
 '2000 부산연극제
 *
 경연4 참가극단

극단 **열린무대**

길

■ 안민수/작 ■ 구현철/연출
 ■ 일 시 : 4월 10일(월)~11일(화)/ 매일 오후5시, 7시30분
 ■ 장 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대 표/ 심상신



연 출/ 구현철

연출의도

1. 길은 시간의 역사이자 곧 인간의 역사다. 어디에선가 왔고 어디론가 간다. 그 길위에 해가 뜨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논다. 논다는 걱정도 없이...
2. 연극이 인간의 내면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만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동양의 극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일상적 시공간을 뛰어넘는 환상과 초월 세계를 전개해 왔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극의식이 가지는 세계관의 한계를 길위에서 극복하고자 한다.
3. 그러므로 연기의 본질은 말이나 표정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신체감각의 다양함을 높고 즐기는 것에 연기의 본질이 있다. 나의 물음은 어떻게 그것을 현대와 전통,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대립을 극복하여 지속시키느냐에 있다.
4. 길 위에 하나로 뭉쳤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우새의 아이들 처럼 인간의 외로움, 희망과 절망 또한 하나로 뭉쳤다가 흩어지면서 나의 작업은 세계와의 합일을 꿈꾼다.

작품 줄거리

1. 해- 길위에 해가 솟는다.
새벽은 아득히 가고 가슴 벅차게 피어난 햇살만 찬란히 비춘다. 길위에...
2. 엄마- 바우새 마을에 애들이 모여 논다. 씩박질하고 흥장난하고 논다. 엄마를 부르짖는다. 여기에 장님 객이 나타나고 애들은 그를 경계심을 갖고 놀리다가 사라진다.
3. 편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새님에게서 드디어 전갈이 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 허둥지둥댄다. 그들은 촌장을 찾아 새님을 기다릴 채비를 한다.
4. 새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새님을 맞이하기 위해 흥겹게 굿을 벌인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과는 달리 눈 먼 객만이 그들의 고향을 비웃듯 길을 지나간다. 사람들의 희망은 허무하게 끝났고 제각기 어디론가 흩어진다.



The 18th Pusan Theatre Festival

'2000 부산연극제

경연4 참가극단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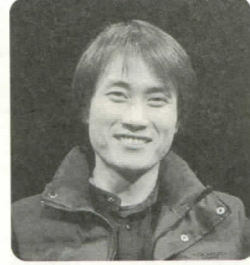
객/ 안성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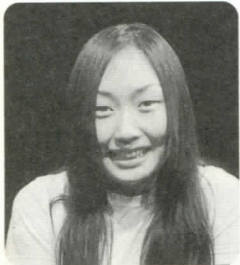
촌장/ 배진만



아이
마을사람 1 / 유재명



아이
마을사람 2 / 김승연



아이
마을사람 3 / 염지선



아이
마을사람 4 / 김경화



아이
마을사람 5 / 노미경



아이
마을사람 6 / 정상미



아
무녀 / 이정비



The 18th Pusan Theatre Festival
 '2000 부산연극제
 *
 4월 4일 참가극단

Staff



기획 / 심상신



무대감독 / 왕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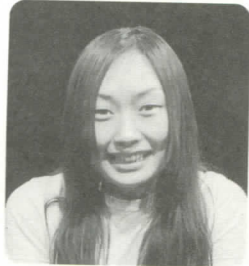
무대미술 / 김경화



조명 / 서석현



음악감독 / 이세호
 작곡연주



의상 / 염지선



소품 / 정화선



분장 / 임유경



풍물지도 / 박순호
 <남산놀이마당>



진행 / 이경언



진행 / 주명숙

예술자문 / 정봉석
 무대장치 / 이영민

도와주신분

- 장성규(장성규 산부인과 원장)
- 박원호(하우엔지니어링 전무이사)